**배꼽에 어루쇠를 붙인 것처럼**

덕이 높은 이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보내지도 않고 맞아들이지도 않으며,

비쳐주기만 하고 잡아 두지는 않는다.[[1]](#footnote-0)

 거울이 있다. 거울에는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다. 거울 속 시공간은 끊임없이 변한다. 하지만 여느 거울과 달리 회화적 흔적으로 시공간의 경계를 흔드는 작가의 거울은 마음 속 깊은 곳까지 비추며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 배꼽에 어루쇠를 붙인 것처럼 나의 가족, 내 이웃의 마음을 훤히 비추어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었는가?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관심과 사랑으로 소통하였는가? 이열의 ‘배꼽에 어루쇠를 붙인 것처럼’ 시리즈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 후학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다.

가족은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식구(食口)이다. 가족의 사랑을 돈독히 하는 공간은 주방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의 사랑을 꽃피우는 주방의 중심에 이제 막 꽃망울을 터트린 꽃 한 송이가 식탁 속에 활짝 피어 있다. 그리고 주방 한 켠을 꽉 채운 거울은 식탁 둘레에 오순도순 모여 앉은 가족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다. 행복했던 어느 날, 어느 순간의 실루엣은 오늘도 안녕했는지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진다. 맛있는 식사를 마치면 이내 소파에 몸을 누이고 담소를 이어간다. 알록달록 색을 달리하는 테이블은 이야기에 흥을 고조시키며 오늘 하루 수고한 가족들을 위로한다. 멈출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 순간을 소중히 하는 것 뿐 이리라. 19세기 누군가의 자동차 핸들은 시계로, 20세기 누군가의 불꽃 튀는 용접을 책임졌을 가스통은 스탠드 조명으로, 21세기 누군가의 트럭 적재 사다리(오토바이 리프트)는 콘솔로 새로운 소임을 하고 있다. 치열했던 과거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브제들은 이제 우리를 명상에 잠기게 한다.

디자인으로서의 가구 개념에서 탈피하여, 생활 속에서 함께 살아 숨 쉬는 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는 ‘미술을 위한 미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실천해 보여주는 교수의 후학에 대한 사랑도 느낄 수 있다. 다양한 형식으로 예술을 실천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작가의 모습을 ‘생활 속 실천미술(Art + Practice)로서 솔선수범하여 후학을 응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거주 공간에서 전시를 개최하여,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만하는 소시민으로서 ’미술‘이 상호 간의 소통 문제를 줄여줄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하는 마음도 느낄 수 있다. 단절과 무관심이 아닌, 대화와 소통으로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 잊혀졌던 ’이웃사촌‘을 소환하고 있다.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진솔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방법론은 전통 회화 방식에서 탈피하여 레이저 조각, LED 라이트 아트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켜켜이 쌓인 거울의 층위는 차갑게만 보일 수 있는 유리의 물성에 깊이를 더해 따뜻한 울림을 전한다. 서로 다른 오브제의 물성을 이어주는 회화적 흔적은 끊임없이 실험하고 도전하며 창작의 중심에 선 작가의 열정을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다.

현관문 앞에 서면 전신 거울 작품을 마주하게 된다. 전신을 모두 담아내는 큰 거울은 현관문을 오가는 모든 이들을 비춘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의 거울은 단순히 겉모습이 아닌 마음속까지 비추며 질문을 던진다. 오늘도 배꼽에 어루쇠를 붙인 것처럼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을 비춰주었는가? 그들의 마음을 읽고 진심으로 소통하였는가? ’거울형 회화‘(mirror painting)는 우리 스스로 깊은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하도록 이끌며, 현실의 시공간을 확장하고 또 다른 차원의 생성 마당이자 증식 공간이 되어주고 있다.

권은영

ACC·ACI 큐레이터

1. 至人之用心若鏡(지인지용심약경), 不將不迎應而不藏(부장불영응이부장) 장자(莊子), 응제왕(應帝王) [↑](#footnote-ref-0)